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줄 너희는 알찌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찌어다 5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삶 속에 어떤 일들은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욥기 38장은 창조세계를 묘사합니다. 천사들이 기쁨을 외치고 별들이 함께 노래 부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선 예수님께서 나귀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장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 소리 높여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구원 앞에 "할렐루야" 외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삶은 선물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기적과 같으며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세례를 통해 축하하는 것은 기쁨의 놀라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육아의 현실은 그런 기쁨을 누그러뜨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창조의 힘을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비앙카(세례받는 아이 이름)와 같은 어린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 더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들이 마주해야 할 미래에 대처할 더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기쁨의 세례식에 참여하는 놀라운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례식에 있는 이유가 우리가 참석해야만 하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참석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께 예배드리며 그리고 그분의 모든 축복들을 다시 기억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양이로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목자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11).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와 같이 돌보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를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내어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세례식은 이것을 아름답게 나타내줍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새 생명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과 또 그분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 그분의 약속들과 그분의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외칩니다. 이것이 하늘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분의 위엄과 영광, 매일매일 일상에서 마주치는 그분의 선함. 기쁨으로 외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입니다.

비앙카를 보십시오. 이 세례식은 또한 우리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비앙카를 보십시오. 이 세례식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그녀가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그녀의 하나님으로 알길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교재 안에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녀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알며 자신을 향한 그분의 언약의 신실함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비앙카를 보십시오. 하늘의 왕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속해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은혜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비앙카와 다른 모든 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 그들의 삶 역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일치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디에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섬길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간절히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갑니까?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그

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는 그 분의 백성 됨을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매일의 일상에서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찻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